2019 이웃사랑 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8월 ~11월) 행사 안내



“ 성평등 교육(feat. 샌드위치 만들기) ”

2019.8.9.

외부강사님들이 오셔서 초4~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방적 강의교육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퀴즈대회 등 아동들의 머리에 콕 박히도록 재미있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수업 후에는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성역할에 대한 평등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알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노아와 함께 하는 이웃사랑 여름 캠프(2박3일) ”

2019.8.12.~14(2박3일)

짧은 방학이 끝나갈 무렵,**노아베이커리가 후원하는 나라사랑 이웃사랑 행복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올 여름은 서해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예쁜 펜션에서 2박3일 동안 지내면서 원 없이 수영장과 바다를 오가며 온 몸을 태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며 살짝 영향을 주어 스릴 넘치는 파도타기의 기회도 있었고 시원하게 수영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만리포의 명물 짚라인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키웠고, 저녁에는 BBQ와 불꽃놀이를 즐기며
이웃사랑 공동체의 하나 된 모습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날, 천연기념물 신두리 사구 해설탐방이 있었는데
폭염으로 아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아쉽지만 짧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사고 없이 더위를 피해 마음껏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했던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 이웃사랑 센터 8월 생일자 파티 ”

2019.8.28.

여름방학을 정리하며 8월자 생일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달에 생일을 맞았던 친구들을 축하해주면서 동시에 더운 여름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음을 자축하며
아이스크림케익을 자르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파티타임을 가졌습니다.

<table>
<tr>
<td></td>
<td>

“ 월정어린이재단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감사편지 쓰기 ”

2019.8.30.

월정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1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어교육을 종결하며 후원해주신 분들께
교육받으며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고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td>
</tr>
<tr>
<td>
</td>
<td>

“ 한국전력 안산지사 추석선물 전달식 ”

2019.9.10.

추석맞이 사랑나눔 송편전달식을 하기 위해 한전 안산지사 임직원분들께서 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일 만들어진 맛있는 송편을 한 아동에 한 상자씩 선물해주셔서 아동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떡을 먹으며 추석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늘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는 안산지사 임직원 여러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td>
</tr>
<tr>
<td></td>
<td>

“ 단원구 보건소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

2019.9.20.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센터를 찾아주셔서 아동들의 올바른 칫솔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치아상태를 살펴보고 조언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희망자에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불소도포 시술을 해주셔서 아동들이 많은 치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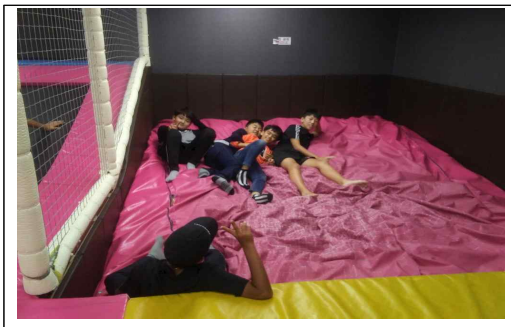
</td>
</tr>
<tr>
<td></td>
<td>

“ 이웃사랑 센터 9월자 생일 파티”

2019.9.30.

이번 달에는 두 명의 아동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집에서나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해본 적이 없는 아동이 자신의 생일파티에 대한 설렘, 기다림과 케익 앞에서 해맑게 웃는 모습을 통해 이 공간의 의미, 이런 작은 행사의 이유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케익의 달콤함과 촛불의 따듯함이 마음속에 녹아드는 시간이었습니다.

</td>
</tr>
</table>

<table>
<tr>
<td>
</td>
<td>“ 재량휴업일 문화체험활동(방방,슬라임카페) ”
2019.10.4.

지역 모든 학교가 재량휴업 하는 날을 이용해 한가할 것이라 생각한 오전 시간... 안산 중심가의 방방클럽과 슬라임카페를 찾아 즐거운 체험놀이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고 방방은 만원 ㅠ)
각자가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였고 두 시간의 체험시간을 갖고 롯데리아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가지는 않았지만 센터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놀이와 맛있는 점심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센터로 돌아와 일과를 진행하였습니다~~</td>
</tr>
<tr>
<td></td>
<td>“ 구강전문강사 교육(단원보건소) ”
2019.10.15.

보건소에서 전문 구강교육 강사분을 보내주셔서 아동들의 구강건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만 콕콕 찍어 지루하지 않도록 실습중심으로 교육하셔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칫솔질을 직접 해보도록 한 후 상태 확인해볼 수 있는 키트를 이용해 자신의 칫솔질에 대하여 시각적인 점검을 해볼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치실, 자일리톨 등 다양한 구강건강을 위한 아이템들을 선물로 주셔서 더 좋았던 교육시간이었습니다.</td>
</tr>
<tr>
<td>
</td>
<td>“ IT FESTIVAL(단원구청) ”
2019.10.24.

올해 컴퓨터 정보화교육을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색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PC로 검색을 하였으나 올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도록 대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뿐 아니라 희망하는 일반 참가자도 참여하여 대회 외에 여러 부스를 통해 IT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td>
</tr>
</table>





“ 서원고 아마토르 다문화봉사단 토요체험활동 ”

2019.10.26.

날씨가 제법 차가워진 토요일, 오늘은 서원고 봉사단의 초청으로 분당구에 위치한 진로체험관 ‘잡월드’와 자원순환센터 ‘다시쓰는 세상’에 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신기한 미래의 직업세계를 들여다보고 생활 속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맛있는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 오셔서 아동들을 살뜰히 챙겨주며 수고해주신 아마토르 봉사단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아마토르 전원이 센터를 방문하여 학습봉사 및 간단한 간식을 함께 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교육(스마트 라이프) ”

2019.10.29.

스마트폰에 지나친 의존을 하거나 중독 상태에 이른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아동들에게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의식과 방식을 가르쳐주고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각교육과 그리기활동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해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교육을 진행하여 아동들도 적극적으로 배우며 자신의 스마트폰 생활을 보다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날 가족문화축제 ”

2019.11.2.

쌀쌀해진 11월의 첫 토요일에 제9회 안산시지역아동센터의 날 “가족문화축제”를 열어 아동들의 축하공연, 문화공연과 다양한 진로체험 부스참여로 뜨거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센터 복지사 선생님이 대표로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선언을 해주셔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센터아동들은 즐겁게 여러 체험부스를 돌면서 양초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색채 꾸미기 등 체험을 하며 센터가 구입한 먹거리쿠폰으로 든든한 점심과 간식거리를 해결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욱 높아진 참여율과 알찬 행사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은 활기를 띠었고 참여한 아동들도 신나게 한나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table>
<tr>
<td>

</td>
<td>“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임직원과 함께 ”
2019.11.8.

금요일 오후 센터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부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연수원 마당에서 보물찾기도 하고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와 즐겁고 신나는 게임을 하며 크게 웃는 가운데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연수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다니면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고 멋진 홀에서 정성껏 준비된 뷔페도 임직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맛나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질 때는 아쉬움을 날려 버릴 멋진 기념품을 주셔서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동들이 계속 흥분했습니다.
지역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는 살아 있는 체험 기회였습니다.</td>
</tr>
</table>